

< 붙임 >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1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2023년 1월 이후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총 114건 접수됨.

[소비자원 등 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상담 건수]

(단위 : 건)

구분	2023년		합계
	1월	2월(~15일)	
상담 건수	63	51	114

2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

[사례1]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 A씨는 한국소비자원 '김○○ 과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주식리딩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전화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직원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함. 이후 업체로부터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정보를 제공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음.

[사례2] 소비자원 협력업체 등 허위사실을 빌미로 URL 주소 접속 유도

- B씨는 2023. 1. 12. '개인투자회생센터'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협력업체이며 과거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가입비 환급 예정임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인터넷 링크(URL)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함.

[사례3]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투자 권유 및 금전 편취

- C씨는 D업체로부터 2023. 1.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과거 투자로 손실 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 중이다'라는 전화를 받음. 이후 담당자로부터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추가 피해를 입음.

3

소비자 주의사항

가. 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전화를 받은 경우

- ☐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 또는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소비자피해구제센터, 개인투자회생센터 등과 관련 없음에 주의

나. 금융·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현금 대신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 신고한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한다.

5D6F6A90D84D4EBFB3355A3973CD2DF4